

한국 대학의 교수방법, 이대로는 안된다

계열별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한국의 사회과학 교육, 이제는 변해야 한다

손 장 권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국 제화의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한국 사회는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다. 대학교육도 복잡다양한 사회 현상을 수용하고 급변하는 사회 추세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롭게 들어오는 학생은 달라져 있는데 교수도 학교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정체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한국은 미래의 정보서비스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교육은 우리의 역사와 사회를 인식하고, 국제경쟁력에 생존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인을 양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 권위 및 교수 중심의 교육서비스로는 새 시대상에 맞는 창의적인 인력을 배출하기 어렵다.

사회과학 교육은 강의실과 교수의 권위에 의존하여 구시대의 인물만 수없이 복제하는 작업만 한 듯하다. 사회의 요구와 필요성을 충족하고 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설비와 교수방법이 다양해져야 한다. 대학은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교육도구를 갖추어야 하며, 교수는 자신의 권위에 침잠하지 말고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도 스스로 참여하고 창조하는 자각의 학습자세를 정립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전제에서 사회과학 계열의 교과목의 다양성, 현행 수업체제의 문제점 그리고 교과성격별 수업방법 개발 등의 문제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사회과학은 인간의 집합의식과 사회행위를 규명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다. 사회과학의 탐구대상은 법, 경제, 행정, 사회, 복지, 경영, 정보 등 구체적인 관심 주제에 따라 전공이 세분된다. 그러나 전공학과의 명칭은 인간의 유형화된 사회행위에 관한 주제별 명의일 뿐 본질적인 탐구목적과 방법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물론 사회과학의 구체적인 교과목은 사회현상의 복잡성만큼이나 다양하게 제시된다. 개인 및 사회의 사회적 행위에 관한 것은 어떤 것이든 모두 사회과학의 교수과목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과학의 교과목들은 학문의 대상과 연구방법에 따라 주제현상의 기초인지 과목, 구체화된 계열별 주제 과목, 사실규명을 위한 방법론적 과목 그리고 이론통합의 일반화 과목 등의 네 가지 교과군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들 교과군은 학습단계의 내용과 고도화 수준을 반영하며, 각각의 단계는 교과와 내용과 성격에 따라 교수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첫째, 기초인지 과목군은 전공 또는 현상에 대한 기초 개념과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교과로서, 보통 개론 및 전공이론서로 제시되는 전공기초 과목들이다. 이들 교과와 교수방법은 단일 교재에 근거한 집단강의 방식에 의존해 왔다. 교과 담당자는 전임교원보다는 강사를 위촉하는 경향이 농후한 형편이다. 전공학문의 토대가 되는 개념과 이론에 대한 지식은 구체적인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이들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기초지식이다. 기초지식에 대한 교육 부실은 사회과학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둘째, 계열별 구체과목군은 주제현상의 구체적인 세부현상을 보다 미시적으로 정리한 교과목들로서 기초과목들의 개념과 이론

을 확장하여 논의하는 교수과목들이다. 일반적으로 전공선택 또는 계열교양으로 분류되어 있는 교과목들을 포괄한다. 이 과목들은 각종의 사회적 행위를 구체화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세부 개념과 하위 이론들이 제시된다. 이 단계에서의 학습은 관심 주제에 관한 문제 인식과 새로운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대체로 전공교수들이 관심을 갖고 강의를 담당하며, 교수방법은 담당자의 의도와 교수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교육공학상 정보미디어에 의한 개별교수제, 팀별지도제, 참여학습제와 같은 새로운 교수방법 등은 거의 적용하지 못하고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교수강의제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

셋째, 방법론적 과목군은 현상의 사실규명 작업으로 제기된 문제와 가설적 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 처리에 관한 교과목들로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주제규명의 방법론적 설정, 자료수집의 조사방법, 수집된 자료와 정보의 양적 또는 질적 처리 그리고 설명방식의 채택 등에 관련된 교과목들로 포괄된다. 이 과목군은 인지적 측면보다는 응용적인 행위 측면을 강조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회과학의 교과목 중 이 과목군은 현대 정보사회의 매체 또는 컴퓨터 기기와 같은 시설 장비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이 취약한 한국의 대학에서 설비 부족뿐만 아니라 전문성 있는 교수 능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이론통합의 일반화 과목군은 사회과학 분야의 학습효과를 통합할 수 있는 사실 발견과 이론 형성의 종합단계에 필요한

학습과목들로 생각할 수 있다. 고도의 논리적 추상성과 현실의 구체적 경험이 통합되는 새로운 개념과 이론의 형성은 강의실 내의 담론적 학습으로 결코 실현될 수 없다. 학습자의 개인적 체험과 폭넓은 독서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이론은 현실적인 사회의 장에서 통합 정리되어야 한다. 산학협동, 현장 인턴제 그리고 사회실습은 사회과학의 교수과목에서 꼭 개발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남는다.

### 강의실과 교수의 권위에 의존한 구시대적 교수방법

우리의 현실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과학 과목의 수업체제는 일인의 교수가 대형의 강의실에서, 수많은 수강자를 대상으로, 특정교재에 의존하여, 주입식 설명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담당교수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간혹 팀별 발표기회를 제공하거나 사회참여의 개별학습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 과목의 수업은 대체로 사회와 소비자의 수요 욕구를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규격화된 집단강의체로 일관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변화는 집단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전통적 교수방식에서 정보서비스 사회에 합당한 다양한 교수방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과학의 수업방법도 교과에 특징에 따라 새로운 교육공학적인 교수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일반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필요한 교수방법들은 전통적인 집단강의제 외에도 공동학습, 참여학습, 시청각 및 미디어학습, 협동교수제 그리고 개별학습 등의 방법들이다. 여기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수방법과 지금까지 관행화된 전통적인 방법을 수업목표와 학습내용, 학습조건과 교수형태, 수업시간과 학습활동 그리고 평가와 학습책임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기존 교수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전통적인 강의제의 수업목표는 대체로 비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일반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학습내용도 기억력 중심으로 암기에 의존하는 비합리적인 경향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의 새로운 수업체제는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목표를 구체화하여 학습내용을 학생들의 비판력, 이해력,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둘째, 수업방법은 학생 다수를 대상으로 지식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지식 주입의 방식에서 소집단 중심의 탐구 및 토론식 수업으로, 학습자들이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응답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수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한 교재나 판서의 방식보다는 수업내용과 성격에 적합한 다양한 교재와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고 풍부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조건을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수업시간의 경우 시간 단위로 획일화되어 있는 고정단위 개념보다는 필요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는 융통적인 시간 단위 운영이 필요하다. 학습활동에서도 전통적으로 관행이 된 학생들의 수동적인 수강 태도와 기계적인 반응의 수렴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능동적인 수업 참여와 적극적인 의사개진의 학습활동을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강의중심의 전통적인 학습평가는

중간 및 기말시험, 그리고 간혹 과제물 보고서에 근거한 상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특정한 준거를 지향하는 절대평가나, 학생의 실력향상 정도에 따른 개별평가 또는 학생들의 상호평가를 반영하는 평가 등의 다양한 성적부여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수강자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적 여건을 감안한 교수와 학생의 공동책임의 자세가 바람직하다.

### 교과특성별 수업방법 개발이 절실하다

사회과학 과목들은 교과영역의 단계별 성격과 개별교과의 학습여건에 따라 수업방법을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교수방법의 개발에 고려될 수 있는 요인들은 교수의 태도, 학생들의 성격, 교육 설비 환경, 교과목 특성 등의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교수의 태도는 개인의 철학, 목표, 방법 등의 요인에 따라 차별이 심하므로 논외로 하겠다. 다만 교수는 수혜를 받는 자가 아닌 제공하는 자로 서비스 정신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싶다. 학생들의 성격은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수강 대상자로서 학생은 집단이 아니라 개별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사회과학의 수업은 집단이 아닌 개별수업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교육조건의 설비 환경은 사회과학의 경우 강의실로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특성상 교육설비는 온갖 시청각시설, 실험설비 및 사회제도적 장치 등이 요구되는 방대

한 사항으로 인식해야 한다.

사회과학 과목들의 수업형태는 무엇보다 교과영역의 성격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과목별 교과의 성격은 교수, 학생 그리고 설비 환경 등의 다른 여건을 결정하는 선행 요인이다. 그러므로 교과목의 특성을 기준으로 사회과학 교과의 영역을 분류하면 인지주의 교과, 행위주의 교과 그리고 자연주의 교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인지주의 교과는 지식과 이론을 인식하고 암기하는 과목으로, 앞에서 살펴본 기초 및 계열군의 교과목들이다. 행위주의 교과는 지식과 이론을 행위적 시행착오를 통하여 수용하는 방법론적 과목들이다. 자연주의 교과는 사회참여와 실습을 통하여 습득되는 경험체계의 통합적 지식 추구 과목들로 볼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영역 차원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 전통 및 새로운 학습과 수업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첫째, 인지주의 교과목은 현상의 이해를 위한 지식개념의 암기나 인지가 우선하는 과목들이다. 이러한 교과목들은 전통적인 집단 공동학습제가 유효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교육공학적 개선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특히 기존의 교수 중심의 일방적 강의양식보다는 학생 중심의 팀제 개발, 소규모 집단별 활동, 토론식 수업전개, 자발적 학습참여, 교수 협동 지도체계, 전문가 초빙 대화, 학생 개별지도 등의 다양한 방법들의 시도가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둘째, 행위주의 교과목은 연역이나 관념의 추상화보다 행위적 시행착오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귀납화할 수 있는 과목들이다. 현지조사, 실험, 자료수집, 자료처리 등의

행위적 현장교육의 교과목은 집단화된 강의 수업보다 개별학습의 현장실습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연구 및 수업설계와 교육설비의 제반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수업은 컴퓨터 보조 학습, 프로그램 수업, 미디어 및 시청각 교육, 그리고 철저한 대면적인 개별학습의 방법 등을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볼 수 있다.

셋째, 자연주의 교과목은 이론과 행위가 함께 종합되는 실제의 사회학습에 관한 교과를 말한다.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사회과목 학습은 한계가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주제와 방법들은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응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과학 관련 교과목들은 사회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 개발이 요구된다. 산학협동 교과, 인턴 현장실습, 사회참여 등의 교과개발들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방법들로서, 이들은 현재의 대학교육에서 사회과학도들에게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과학도들에게는 전 사회가 교육의 장이 된다. 사회적 통합교육으로 사회과학 교육의 공동학습 및 참여학습의 수업개발은 절실하다.

사회과학의 발전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감성을 갖고 있어도 사회적 가치와 행위판단을 그르치면 역사발전은 역행한다. 사회의 자원과 인력

을 동원할 수 있는 지혜는 사회과학 교육에 달려 있다. 한국의 사회과학 교육, 이제는 변해야 한다. 대학의 외적 환경이 아직 변화되지 못한 탓에, 우리가 바라는 행위주의 또는 자연주의 교수방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람직한 사회과학 교수방법들이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 할지라도 전통적으로 관행이 되어왔던 인지주의 교수방법은 최소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수들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하며, 그들의 노력과 결실에 따라 학생 그리고 학교의 지원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사회와 국가 또한 국가 장래를 결정하는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여 정책 또는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

손장권/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KBS 프로듀서,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등을 지내고 현재는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공저로 『태국의 사회변동과 경제발전』, 『중국 조선족의 사회발전과 한중관계의 위상』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신조직인의 형성과 관료조직의 재구조화", "사회발전과 여성의 위상", "협회조직의 기능과 특성: 부동산 중개업 조직군" 외 다수를 발표했다.